즉시 배포용: 2024년 5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고속도로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직원 Vincent GIAMMARVA를 기리기 위해 직원에게 조의를 표하는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

5월 13일 매장 당일까지 조기 게양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Henrietta 유지 관리 부문 건설 중장비 운전사로 5월 9일 Chili 타운 작업 구역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뉴욕주 고속도로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직원 Vincent "Vinny" Giammarva를 기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5월 13일 일출부터 주 건물에 조의를 표하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무의미한 죽음을 슬퍼하는 Giammarva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의 고속도로청 근로자들은 운전자로서 우리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작업 구역에 접근할 때 경계심을 유지하고 속도를 늦추며 움직여야 합니다."

Vinny Giammarva는 뉴욕주 고속도로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에서 19년간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